

AI 데이터센터가 바꾼 게임 흥행기준… 그래픽보다 ‘최적화’

비용에 고사양 PC 보급 둔화
이용자 다수, 중급 그래픽카드 사용
‘스텔라 블레이드’ 등 최적화 앞세워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을 더 쉽게 만들었지만, 정작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PC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이 오르면서 게이밍 PC 업그레이드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얼마나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했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PC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느냐’가 흥행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반도체 시장의 수요 구조를 바꾸고 있다.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엔터프라이즈 SSD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반 PC용 메모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빠듯해졌다. 시장조사업체들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동안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AI가 만든 이미지.

망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개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적화 경쟁 끝…’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가 승부

과거 PC 게임 시장은 레이 트레이싱과 4K 해상도 등 최고 그래픽 구현 경쟁이

중심이였다. 하지만 스텝 하드웨어 조사에서도 RTX 3060·4060 등 중급 그래픽카드 이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신 하드웨어만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 경우 상당수 이용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개발사들은 ‘그래픽 품질’보다 ‘이

용자 자변’을 선택하고 있다.

최적화는 다양한 CPU·GPU 환경에서도 프레임과 로딩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전반을 의미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래픽은 상황 평준화됐지만 최적화는 여전히 개발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영역”이라며 “출시 직후 ‘최적화가 좋다’는 평가가 장기 흥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적화 잘했다’는 평가가 흥행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국내 게임들도 공통적으로 최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DLSS 4와 AMD FSR, 인텔 XeSS를 지원하며 다양한 PC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네오위즈 ‘P의 거짓’ 역시 높은 그래픽 품질에도 프레임 안정성과 낮은 버그 발생률을 유지하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필어비스 ‘붉은사막’은 자체 엔진을 기반으로 대규모 오픈월드와 성능 최적화를 함께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이크 레이더스’도 테스트 단계부터 프레임 안정성과 서버 최적화를 반복 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개발 효율을 높일수록 최적화 경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용자의 PC 성능이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그래픽이 좋다’가 구매 이유였다면 지금은 ‘내 PC에서도 잘 돌아간다’가 구매 이유가 되고 있다”며 “AI 시대 게임 경쟁력은 최고 사양보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최적화 기술에서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게임 개발 방식을 바꿨다면, AI 데이터센터는 흥행 공식을 바꾸고 있다. 이제 게임사의 경쟁력은 화려한 그래픽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끊임 없이 즐길 수 있는 최적화 기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U+, 개인화 AI 기술 국제 경쟁력 입증

정보검색 분야 대표 학술대회 채택
대규모 트래픽에도 일관된 성능 유지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인공지능 기술 ‘퍼스널 인텔리전스’ 연구 논문이 정보검색 분야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검색 분야 대표 학술대회 ‘SIGIR 2026’은 호주 멜버른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간) 열렸다.

회사가 연구를 통해 발표한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상황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통화 요약과 이용 기록, 위치 기반 패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입체적으로 고객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은 연령과 특정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고객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상황이나 관심사를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금제나 콘텐츠를 추천할 때 연령대 등 일반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의 실제 이용 패턴과



퍼스널 인텔리전스 논문 집필에 참여한 LG유플러스 구성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관심사를 반영해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한다.

특히 실제 통신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설계했다. 데이터 외부 이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 수십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정확도를 확보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복구 체계도 구축했다.

향후 ‘에이전틱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IPTV 추천과 고객센터 등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에이전틱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AI가 고객과의 대화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로 얻은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기존 정보와 연결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전영환 LG유플러스 퍼스널 에이전트 기술팀장은 “이번 SIGIR 논문 채택은 LG유플러스가 개발해 온 개인화 AI 기술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AI 기술을 고도화해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SKB,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확산 ‘호평’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SK브로드밴드는 서울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산재 예방 성과 창출,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회사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과 함께 주최한 대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도 이날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 안전 슬로건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주제다.

대상은 ‘아빠!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은 우리가족 행복’ 등이 차지했다. 또 행동심리학으로 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주제로 강연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주요 사업장 내 소방안전 시스템 컨설팅을 진행했다. 오는 9월에는 서울 국내 대표 안전문화 축제인 안전한마당에도 참가한다.

성진수 SK브로드밴드 CSPO(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가정과 일터의 안전문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SK브로드밴드는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탐네이버, 스마트빌딩 기술 첫 외부 상용화

자율주행 로봇·디지털트윈 구축

탐네이버가 일본 도쿄 핵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복합시설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시속 1784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빌딩 기술을 처음으로 외부 상용화했다.

네이버는 23일 NTT동일본,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는 도쿄역과 연결된 45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상업시설, 호텔, 버스터미널, 초등학교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사업에서 탐네이버는 자율주행 로봇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 디지털트윈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미쓰이부동산은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운영과 시설 연계를 맡고, NTT동일본은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과 로봇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이번 사례는 탐네이버가 1784에서 구

축·운영해 온 스마트빌딩 모델을 외부 건물에 처음 적용한 상용화 프로젝트다. 특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나 별도 클라우드 환경이 없는 일반 빌딩에서도 로봇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3사는 우선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탐네이버는 1784에서 축적한 로봇 운영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예외 상황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루키’, 멀티 로봇 관제 시스템 ‘아크브레인(ARC brain)’, 디지털트윈, 비전 기반 측위 기술 ‘아크아이(ARC eye)’ 등이 적용됐다.

3사는 앞으로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디지털트윈 기반 빌딩 관리 등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하이브, 패션협회와 K-패션 경쟁력 강화

K-팝 IP 패션 생태계 구축

하이브가 지난 22일 한국패션협회와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 산업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패션협회가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K-패션 커넥트’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팝과 K-패션 산업을 각각 대표하는 하이브와 한국패션협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산업적 역량을 바탕으로 K-팝 IP 기반 패션 상품과 연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국내 우수 제조 기업과 협력



(왼쪽부터)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대표, 최우혁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

/하이브

하는 K-패션 상품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콘텐츠와 제조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